

전주시의 도시 혁신... 10월 중 '사회혁신 주간' 개최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포문 사회적경제 박람회 동시 진행 소셜마켓 등 네트워크 행사

대한민국 사회혁신을 이끌어온 전주시가 시민이 행복하고 더욱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사회혁신 주관을 운영기로 했다.

전주시는 오는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전주시 일원에서 그간 독립적으로 운영해온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의 △사회혁신 한마당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하나로 엮은 '2019 전주시 사회혁신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회혁신 주간의 포문은 사람·생태·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국내외 전문가와 기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대거 참여해 지역화의 비전과 경험을 공유하는 장인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가 맡게 된다.

5회째를 맞이한 행복의 경제학 국제



전주, 대한민국 대표 사회혁신도시 굳힌다!(2018사회혁신한마당)

회의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지역화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리며, ▲도시재생의 지속성 ▲로컬푸드 ▲사회투자기금 활성화 방안과 민간의 역할 등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1세션 '도시재생의 지속성'에서는 델라던켄 영국 슈마허대학교 교수가 '공동체의 자산화를 통한 도시재생'에 대해 발제하며, 2세션에서는

아나 리백 로컬푸드 디렉터가 로컬푸드를 주제로 한 지역의 먹거리 전략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3세션에서는 엘렌브라운 미국 공공은행 대표가 사회투자기금 활성화 방안과 민간의 역할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시는 이번 국제회의에서 사전에 시민평가단을 모집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5년차를 맞이한 행복의 경제학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할 방침이다.

이어 18일과 19일에는 사회혁신이라는 거대담론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사회혁신 한마당'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전주에서 활동 중인 500여개의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원기관 등이 함께 만드는 연대와 협력의 장인 '전주시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2회째를 맞이한 '사회혁신 한마당'의 경우 '혁신이나 해볼까'라는 주제로 두 개의 메인 프로그램인 '사회혁신 컨퍼런스'와 '체인지메이커수다' 등 ▲혁신이 무엇인지 ▲왜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시민들이 유익하고 윤택하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첫날 진행되는 사회혁신 컨퍼런스는 공공, 기업, 기본소득, 공동체를 주제로 하승찬 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구범준 세상을 바꾸는 시간 대표, 이대건 책마을 해리 촌장 등 대한민국 대표 사회

혁신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전주의 미래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어 둘째 날에는 노동·기술·도시·환경·젠더 등 분야별 사회혁신가들을 초대한 '사소하지만 확실한 변화'를 주제로 전주시민들에게 현실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체인지메이커수다'가 예정되었다.

사회혁신 한마당은 또 ▲혁신 관련 교류의 장인 혁신 올림픽 ▲리빙랩 체험·전시 ▲사회혁신 명소 탐방 프로그램 ▲세계 사회혁신 전시관 등 다양한 혁신 부대프로그램과 30여개 부스로 구성된 혁신마켓, 풍성한 문화예술 공연으로 풍성하게 채워질 예정이다.

끝으로 '전주시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전주에서 활동 중인 500여개의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원기관 등이 함께 만드는 연대와 협력의 장으로 소셜마켓, 전시홍보관, 창업 및 구인구직 상담소 운영을 비롯한 다양한네트워크 행사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봉재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청년 창업자에 리모델링·임대료 지원

인천 중구 청년창업 지원사업

인천 중구가 지역주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월 29일부터 중구 전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주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사업 지원 대상자는 사업에 대한 열정과 아이디어를 갖추고 중구 내 창업을 희망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 청년창업자로 중구 관내 거주자를 최우선 선발하며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구는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된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비용 80만원/3.3㎡ 최대 2400만원과 임대료 100만원이하/월 6개월을 지원하며 창업 이후 운영역량 제고를 위한 세무, 회계교육 등의 창업역량강화 컨설팅을 진행한다.

/인천=백용찬 기자 wsac114@

장흥 물축제, 여름 대표축제로 '우뚛'

장마 영향에도 51만명 관광객 모여 유튜브와 SNS 실시간 중계 역할 커

제12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8월 1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장흥군은 올해 물축제에 51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했다.

개막 초 막바지 장마의 영향으로 흥행을 염려했던 주위의 예상을 뒤집고 대한민국 여름 대표축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평가다.

올해 물축제는 '젊음이 물씬, 장흥에 흠뻑'이란 주제로 탐진강과 편백숲 우드랜드를 배경으로 펼쳐졌으며, 물의 도시 장흥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축제에 역사와 문화의 색채를 덧입혔다.

7월 27일 펼쳐진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에는 1만 명이 넘는 구름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역대급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올해 살수대첩 퍼레이드는 안중근과 물이 만나는 역사 퍼레이드로 진행됐다.



물축제 공연 모습

/장흥군청

전국에서 유일하게 안중근의사를 모신 사당이 있는 장흥군의 역사적 의미를 모티브로 물싸움 거리행진을 진행한 것이다.

군민회관 앞에서 '더위로의 독립선언'을 한 퍼레이드 행렬은 '무더위와의 싸움'을 이어가며 물축제장으로 행진을 이어갔다.

축제의 주인공을 관광객과 지역민으

로 내세우면서 물축제의 알찬 프로그램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으며, 축제 기간 내내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인 다음과 네이버의 지역 축제 검색어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온라인을 타고 장흥물축제가 알려지게 된 데에는 유튜브와 SNS 실시간 중계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장흥=위지훈 기자 jh2255@

전남교육청, 내년 예산 주민의견 반영

예산편성 주민의견 수렴 계획 공고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장석웅)이 주민들의 생각과 뜻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2020년도 전남교육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계획'을 1일 공고했다.

도교육청은 예산편성 과정에 교육수요자, 전남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계획을 세워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전남=봉재영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36 | 해질 / 1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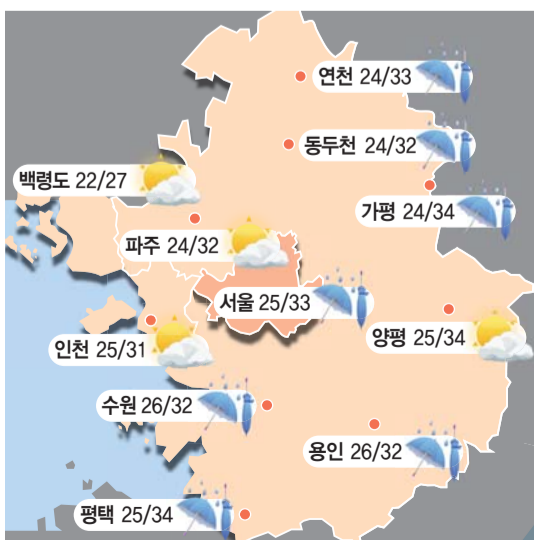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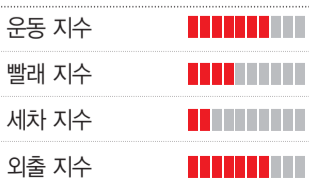
8월

2일 (금)

음력 : 7월 2일

수도권 날씨

33~25°C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인천 서구, 스마트 에코시티 청사진 그려

보고회서 17개 핵심 추진전략 제시

인천 서구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친환경생태계도시를 조성하는 '스마트 에코시티' 구상 최종 보고회를 지난 31일에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스마트 에코시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단계로 기본구상 용역 완료 보고와 23개부서 51개 실현사업의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3대 분야 17개 핵심 추진전략으로 기존사업 연계활용, 혁신

신규사업 발굴, 통합 코디네이팅 강화, 행정 실행력 강화, 통화/연계 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 수립/제공, 정기적 교육 및 워크숍 진행, 국시책 사업관리 강화, 리빙랩 사업 등을 제시했다.

실현사업의 유형은 6가지로 ▲스마트에코 포켓정원, ▲스마트에코 건축, ▲스마트에코 시티커넥터, ▲스마트에코 시티플랫폼, ▲스마트에코 컨텐츠, ▲스마트에코 리빙랩 시티이며, 첨단 기술을 활용해 생태계를 보전하며 도시공간을 조성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인천=박종규 기자 jkpark@

인천 부평구

대형 무더위쉼터 연다

부평구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삼산월드체육관 1층 주 경기장에서 대형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

구는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측과 무더위쉼터 운영을 협의하고, 8월 초 14일 동안 삼산월드체육관을 무더위쉼터로 개방했다.

삼산월드체육관은 2300㎡ 면적에 500명 이상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시설로, 쉼터 운영 기간에는 주민 휴식 공간과 놀이 공간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인천=박종규 기자